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대해 드립니다. 삼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법공양 페이지

내모습 내생명 내부모자식 아닌것 없어

15면에서 계속

가 살았다고 세를 짓고 없고, 했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죽어서 갈 곳이 있다고 할 것도 없고, 또 온다고 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공한 도리를 알았더라면 죽지 않고도 하나가 되는 도리를 알았을 텐데 말이예요.

부 처님의 마음은 일체 만물만생물 다 일대사의 인연으로 맺어졌어요. 그건 왜냐? 어떤 모습이라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어떤 생명이라도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기 때문이죠. 미생물에서부터 모두 전체가 말입니다. 꽃나무를 한번 볼때 '아! 난 참 이쁘게 피었어' 이런단편 들이 아닌 거예요. 꽃나무와 내 마음이 모습은 다를지언정 풀이 아닌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꽃나무도 응해주고 나도 응하기 때문에 꽃은 시들어 가더라도 다시 활기가 나서 '아이,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참 고마워.' 하고 일이 더 싱싱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할나 할나 풀이 아니게끔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술을 해놓고는 조금씩 갖다 드리는 거죠. 은사스님이 그 한술을 다 잡숫고 나더니만 '아휴, 그게 뭐지 난 이제 살았다.' 이라고 일어나시거든요. 그런데 그 형님들이 말입니다. 사형들이 '너는 살생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생을 했으니 무슨 죄를 받았느냐.'고 아단을 했습니다. 그 소릴 듣고 막내 제자 하는 말이 죄가 있다면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달렸지 무슨 죄가 있었느냐고, 부모가 죽게 해서 살렸는데 무슨 죄가 되겠느냐고, 양면을 다 살렸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양면을 다 살렸지 않느냐고.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살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렸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나 하고 물으니까 저런 지렁이가 우리같은 스님네들한테 언제 어떻게 공양을 할 수가 있겠느냐. 자기 몸을 공양을 바쳤으니 이제 진화해서 새로 탄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스님한테 가기 전에 벌써 진화는 됐다 이겁니다. 그랬으니 그 수 없는 지렁이를 살렸고 우리 스님을 살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생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축생들이나 아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스님 입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몇 천년을 기다려도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게 죄라고 하겠느냐고 그러더라는 얘기도.

그러니 여러분도 그 마음이 좁으나 넓은데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은 마음대로 쓰라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약하게도 쓰고 선하게도 쓰죠. 잘못 쓰면 뒤죽박죽이 되죠. 그러니 마음을 뒤죽박죽으로 쓰지 말고 원칙대로 살아라. 진짜 착을 두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내 그릇을 내가 파악하고 건너뛰어라 이거거든요. 물을 건너 뛸때도 내 다리가 그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봐서 건너뛰어야지 개전은 없



그림·최추현

얘기죠. 어떻게 나 아님이 없이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 좀 컴퓨터 쓰실 때 무슨 바이러슨가 뭐가 임팩트 놓은 걸 다 없앤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도 걱정할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쪽에서 막아도 되고 그쪽 사람이 그렇게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연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요, 만약에 남의 회사 거를 훔쳐온다 또는 남의 나라를 집어먹기 위해서 훔쳐간다 이런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훔쳐가지 못하게 하면서 남을 망하게 하지는 않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이것이 부처님의 말씀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배운 사람 만 명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일반인이요, 일반, 민본이 일반이고 일반

자리에서 죽는다 한다면 마음이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등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도리를 웬만큼 아닌 거예요.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이끌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단 모든 것을 하지 않을 거지 말고 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정말 모습이 금방 이 자리에서 죽었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뛰지 않느냐. 자기를 검증해 볼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나 자기 자식 죽었다고 하는 거나 아무 상관없으면 됐어요. 다른 건 다 착을 때어도 자식 착은 때지 못한다는 그런 말 있죠. 그만큼 어려운 공부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죠. 어느 젊은이가 입산을 하러 왔는데 스님이 불기를 '관속과 재물을 다 버리고 왔느냐?' 하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산다면
 하늘 무너진다해도 여여하니
 모든일 대처하려면 놓으세요

이 만물이예요. 그래서 부처도 '내가 부처다' 할 수 없죠. '내가 했다' 이럴 수도 없어요. 하여튼 그러면서도 여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를 잉태한다고 그러죠. 옛날에 선사들이 말씀하신 거지만 돌장승이 눈물을 흘린다 또는 돌장승이 어린

니가 "다 버리고 왔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스님이 보기에는 잔뜩 짙어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기를 "관속은 짙어지고 왔어. 마음에 잔뜩 넣고 왔으니 그게 버리고 온 거냐? 다시 버리고 오나라." 또 재물도 보니까 식구를 수대로 나눠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재물도 다 버리고 오나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그럼 다 버리고 오겠습니" 하고는 재산 모아놓은 것을 다 그냥 불에 태울려고 하고 재물은 다 물 속에 다 넣으려고 하니가 그때서야 공중에서 소리가 나기를 "야야,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다." 이러더라는 거죠. 하하하.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라서 걸 알아라. 버리고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묘한 법입니다. 이게.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 한 20년 전에 병원에서 10년동안 아파서 누워만 있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등 뒤에 이렇게 혹 같은 것이 붙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만 있던 사람인데 그걸 보는 어머니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레 여걸 찾아왔어요. 나는 그랬죠. 나는 누구 이른 걸 낚게 해주고 잘되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말예요.

그러나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마음으로 결정을 짓고 부처님전에 정성껏 마음 내시고 또 부처님께 관하리구요. 그리고 아한테도 관하는 걸 일러주라고 그랬어요. 또 그때 나와 있던 책도 열심히 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어느 날 책을 서른 번을 봤으면서 너덜너덜한 책을 들고 한번 읽어주라구요.

그러네 그날 밤에 꿈에 어떤 체적이 건강하고 머리가 하얗게 선 할아버지가 주장자를 쥐고 오더니만 '야, 이놈아. 젊은놈이 이렇게 10년이나 드러누웠더니 말이나 왜? 게을러 터진 새끼.' 그러곤 그냥 허리를 얼마나 내리치면서 "아이구! 아이!" 하면서 벌떡 일어난 게 그때부터 일어나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이게 정신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물질계만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구선 그때서부터 미국에 가서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지금도 잘 산답니다.

여러분도 겁낼 게 하나도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생사도 벗어날 겁니다. 열심히 해 보세요.

*위 법문은 1999년 4월 4일 법형제회 정기 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한도리 알면 '내가 했다' 내세울것 없죠

목마를 때 물마시듯 실천 따라야 참된 道

전체를 다 먹어치운 거죠. 자기와 풀이 아니게 말이예요.

우리가 한철 살면서 수레바퀴 돌듯하는 이 주머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일이 있는 자유를 못 얻어요. 내일이 있는 자유! 여여한 자유! 세세생생에 자유!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둘부처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간에 그걸 닦 안해요. 너는 여자가 돼서 성불 못한다. 너는 애가 돼서 성불 못한다. 너는 늙어서 성불 못한다. 너는 약해서 성불 못한다. 너는 선해서 성불 못한다 이런 것 설해 말이에요. 약이 풀이거든 선이 풀이 돌아가고 선이 돌아가면 약이 풀이 돌아가니까요.

우리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예요. 여러 분뿐만 아니라 축생이나 아귀나 모든 미생물까지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미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왜 한탄을 합니까. 거기에서 좀 지혜가 있고 능가할 수 있는 쪽이 넓으면 좀 낚게 살고, 쪽이 좁고 그릇이 작으면 좀 힘들게 살고 이것 뿐이죠. 그렇게 해 있던 말입니다. 그러니 벗어나라 하는 것 아닙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예요.

만약에 식구들이 다 부황이 나서 굶어 죽게 되었든 자식이 하나 나가서 '내가 죄를 걸머지더라도 할 수 없다.' 하고는 훔쳐다 보면 그게 보이는 데서는 큰 죄라고 갖다 가두겠지만 부처님 법에서는 '아, 참 지혜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라고 훔쳐서 먹어 살렸으니 너 참 장하다.' 하고 오호러 상을 준다구요. 이것이 도둑질을 하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그런 넓은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다 갖다가 그래요.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옛날에 어떤 절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스님이 자처서 그냥 돌아가시게 했어요. 죽음이래도 마시면 토하고 영 일어나질 못했죠. 다 살기 어렵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막내 제자가 호미랑 소쿠리를 들고서 나가요. 그래서 "너 어디 가느냐?" 하니까 "그냥 어디 좀 갔다 올게요." 그러구 나가거든요. 예전엔 지렁이도 많았거든요. 아주, 이만큼씩만 지렁이를 골라서 그냥 물에다 씻어서 소금을 넣고 그냥 또 씻고 또 씻고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는 산에다가 술을 걸여놓구선 썩 고아서

은데 내 다리는 거기 반도 안 간다면 건너뛰다가 물에 빠져 죽죠. 번연히 알면서 다 건너뛰다가 빠져서 허덕거리는 거를 부처님한테 어떡합니까. 어떤 가난한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가가우면 매일 같이 오고 멀쩡 전화를 매일 같이 해라 그랬어요.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 어떻게 해보죠. 양쪽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같이 전화하면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스님 또 전화했습니까. 그런데 인제 좀 많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관하세요." 그랬죠. 그것은 내 마음의 요량이에요. 그 상대방을 살리려면 업이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건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이죠.

처음에는 관할 줄도 모르던 사람이 자기 남편이 나아가는 거를 보면서 아, 이렇게 좋은 공부를 그동안 안했구나 그러면서 자꾸 관하는 거예요. 관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꾸 드러난단 말이예요. 남편한테 잘못했던 것도 후회가 되고 막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다가 어느날 "스님, 제가 전에는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요즘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요. "왜 별 수가 없어. 그냥 화내보지 그랬어." 그러니까 "아이, 화가 안 나는 걸요." 그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가르칠 겸 남편도 살릴 겸 해서 열심히 관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지려면 어떻게 방편을 해서라도 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차비도 못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야. 멀어서 자주 못 올 사람이야. 아파서 자주 못 올 사람이야. 또 가정이 남편과 더불어 좋지 않아서 못 올 사람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이런 것도 생각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을 이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조그마한 일이지만 이 조그마한 일

로 인해서, 지구의 공기막도 터지면 메꿀 수가 있다 이 소립니다. 조그마한 마음이 그렇게 큰 거예요.

조 그마한 마음이 그렇게 점점 커진다는 뜻을 옛날에는 이렇게 비유를 했죠. '병 속에도 새를 하나 길렀는데 새는 커지고 병은 그대로 있으니 새를 어떻게 꺼내겠느냐?' 이렇게 말예요. 만약에 몸중이 병이고 병 속에 여려분이 들어있다면 그 새는 저절로 커서 나고 들고 한다는 생각도 없이 나고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꺼낼 것도 없고 넣을 것도 없죠. 그런 과정까지 다 살피서 해결 할 줄 믿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마음 공부를 가르치려는 마음이 간절하면 병 얘기가 다 나오고 새 얘기가 다 나왔겠습니까.

달마대사는 양무제 데려와서 역할을 하다가 그 역이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가듯이 인간도 한철 살다가 끝나면 그뿐입니다. 지구라는 이 주머니만 생명이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주머니에서는 바깥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답답하죠. 좀 특 특이 가지고 바깥을 내다볼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또 보는 것만이 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다보면 뭘 하느냐 이거예요. 이 물 그릇을 보지만 하면 뭘 하느냐. 목마를 때 마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실천이 아니면 이견 도가 아니다. 전부 아니라 이겁니다. 오신통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통통이예요. 타신통이니 천이통이니 숙명통이니 신종통이니 이런 것도 전부 이게 육체의 통통이구요. 통통에서 마음이 한발짝도 못 나가면 어떻게 지구 바깥을 나갈 수 있고 우주 바깥을 나갈 수 있느냐는 얘입니다. 우주를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도. 그리고 어떻게 일체 만물만생 생명체를 다, 하늘과 땅 또는 이 중세계를 포함해서 어떻게 다 일대사로서 흡수할 수 있겠느냐는

얘를 낳는다 등등 이런 것도 전부 사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달았나 안 깨달았나 보기 위해서 특목 쳐보는 겁니다. 좀 알았다 하고 날뛰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이 울죠.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관속에 넣었다 한다면 어머니가 우는 것과 자식이 우는 것을 방편으로 말을 하지만 돌장승이 눈물을 흘리고 있고 동자는 흐느껴 가면서 울고 있구나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풀이 아닌 순간 우는 모습은 없어졌지만 모습 없는 그 마음이야 어디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그렇게 했죠. 움직여질 수 없는 돌장승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그러나 그것이 다 이치에 어긋나는 게 아니죠.

살다보면 참 내가 이 세상에 생긴 게 극히 고마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잘 생겼든 못 생겼든 또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이 세상에 낳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공부라도 하게끔 인연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마운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돌아가면서 벌의벌일이 다 생기고 그러는데 만약에 자식을 기를 때 아무 돈걱정도 없고 옷 걱정도 없고 먹는 거 걱정도 없이 아이가 뜰 때쯤에는 그냥 척척 뛰어서 다 쓰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기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 잘 이 풀이 나갈 수 있을까요? 고생도 해보고 배고고 과파보고 망치질도 해보고 참 그 아픔을 겪어온 사람이야 부하를 다 이끌고 살 수 있는 거죠.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은 밥이 배고픈 걸 몰라요. 생각도 못하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일체가 다 그렇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식이 무슨 사고가 나서 죽었다 이렇다면, 내 자식이 금방 이